자료제공 : 2026. 7. 2.(목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실 공동주택과

공동주택과장	이정식	02-2133-7130
재건축계획팀장	임동수	02-2133-714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■ 쪽수 : 3쪽

은마 재건축 7개월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...
28년 5,850세대 착공 목표

-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, 인허가 절차 간소화+공정촉진회의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
- 민간과 공공이 적극 협력한 결과, 정비계획 결정 후 7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
- 민간 정비사업 최초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, 5,850세대 공급(공공분양 195세대 포함)
- 공공기여시설로 공원·공영주차장·개방형 도서관 조성, 침수대비 저류조도 설치

□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정비계획 (변경)결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.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한 '신속통합기획 시즌2'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. 서울시와 강남구는 2028년 착공을 위해 남은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5,850세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,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. 은마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이 25년 11월 결정고시된 이후 26년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,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에 사업시행계획

인가를 받았다. 이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 대비 약 1년을 단축한 결과이다.

□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,552.6㎡ 부지에 지하 6층~지상 49층, 공동주택 29개동 5,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. 공공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를 포함하고,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, 공영주차장,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.

□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, 이주,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.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.

○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핵심 공급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잔여 공정을 밀착관리할 계획이고,

○ 강남구는 재건축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'강남 재건축 신속화합(신화) TF'를 구성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와 갈등 예방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"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다"라며 "서울시는 주택공급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참고 **배치도 및 조감도** ※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○ 배치도



○ 조감도

